

# “서울 집중화와 지방시대 양립 불가”

###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김포시 서울 편입 '반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은 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황대호 수석은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은 국가의 백년대계마저도 팽개치고 오직 총선에서 유리한 이슈를 선정하기 위한 꼼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편입이 실현되면 “진보와 보수정권 모두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당론 추진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수석은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경기도의회와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조차 없었다”면서 추진 자체가 민주적이지도 않고 졸속적으로 이뤄졌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민경 기자)

고 꼬집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도리어 김포 시민에게 손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쓰레기 매립장 등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시로 몰려들 가능성 있고 농어촌전형 혜택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포시민들의 숙원인 5호선 연장사업도 사업비 문제로 표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지원이 70%인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는 5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

로 사업이 전환되면 국비지원은 40%로 더 축소된다.

김포시의 세수도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포시의 주요 세입원인 주민세·자동차세·담뱃세·지방소득세 등을 서울시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도 서울시로 모두 보낸 후 다른 자치구와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황 수석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 선포를 언급하면서 “서울 집중화와 지방시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주변 도시를 끌어들이 거대화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은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실현 불가능한 총선용 서울 편입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적인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민생문제 해결, 5호선 연장, GTX 조속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등 김포시 현안 해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힘주어 말했다. 김민창 기자

## 의회 단신

### 경기도의회 여주시 정책과제 살펴

#### 정책추진단 정담회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6일 여주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여주시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여주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환경 개선 및 지원 △강천역 신철 및 GTX 조기착공 △지역상권 시설개선 지원 △축산업 친환경 여건 개선 등 9개 정책과제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의원은 “대신면 지역에 물류단지 입지 등 개발수요 증대에 따라 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 및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도 37호선 대신면 우회도로 건설 추진 필요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하동 재래시장 도시재생 주상복합건물 추진 착공”을 제안했다.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은 “각종 규제에 인한 낙후 지역 균형발전과 의료·문화·일자리 등 광역 인프라 공유로 여주시민 이동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강천역 신철과 GTX 여주시 유치는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환경오염문제 및 지역 주민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내 공공용지 중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가능한 후보지 발굴 및 처리장 설치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여주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이종우 시장은 “강천역이 신설되도록 지원 요청한다며 또 여주시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관련 소규모 산업단지(6만㎡) 15개소를 조성중으로 여주시에서 경기도에 소규모 산업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하면 최대한 조속히 승인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 공동단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9건의 지역 현안의 해결방안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와 여주시의 협력이 중요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지역이 발전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 공동단장, 여주시 지역 김규창·서광범 도의원과 여주시 이종우 시장,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민창 기자

## ‘송도 마리나 트랙티브 프로젝트’ 소개

###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천관광의 새로운 장 모색

인천시의회에서 인천 관광정책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송도 마리나 트랙티브(Marina Tracktive)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빅데이터 기반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는 6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천 해안 관광지 활성화 방안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용희 의원을 비롯해 김재동·신성영·이단비·이강구 의원, 라이프러리의 임현 책임연구원과

나성수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신도시의 ‘마리나 트랙티브(Marina Tracktive)’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스마트관광 도시 인천’을 목표로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함께 중장기 인천관광진흥계획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강화도·인천항·송도·영종도·옹진(도서지역) 등 주요 해안 관광권역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관광진흥종합계획’과 ‘해양친수도시 조성계획’ 등 기존의 거시적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민간 거버넌스와 협의를 통한 실행 가능한 모델을 제안했다.

또 연구에서는 유럽·미주·중동의 해양관광도시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마리나항 개발계획의 도입 방안을 검토해 인천 송도신도시를 해양과 도시 자원이 융합된 거점으로 설정했다.

특히 제안된 ‘송도 마리나 트랙티브 프로젝트’는 인천대교·송도신도시·영종도 연안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3대 서비스 모델로 구성된다. 이 모델은 ‘마리나 트랙(Marina Track)’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해양관광지의 경관을 즐기며 레저와 휴양을 결합할 수 있는 지속이동 선상 호텔과 하우스를 포함한다.

아울러 송도의 노을과 서해의 낙조를 테마로 한 ‘로맨틱 선셋 포차거리(Romantic West Sunset Street)’와 인천의 도시 역사와 해양 이야기를 담은 ‘디오라마 미니어처 센터(Diorama Miniature Center)’를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결과 발표자로서 나선 임현 책임연구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천 해안관광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객들의 인식 개선과 접근성 향상, 관광 자원의 최적화된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성수 연구원은 “인천 해안 및 도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시간과 창의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연구는 인천 해안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관광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추후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유관부서나 기관과의 협의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종삼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생태하천 연구회'는 최근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천과 원천리천 일원에 대한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사진=인천시의회)

### 생태하천 수원천·원천리천 현장 탐방

#### 인천시의회 생태하천 연구회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생태하천 연구회’는 최근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천과 원천리천 일원에 대한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과거 환경부 수상 등 생태하천 우수 복원 사례로 꼽히는 수원천과 원천리천 탐방을 통해 인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하천 조성 방안 및 하천관리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위원인 이순학(민주당·서구5) 의원을 비롯해 박창호(국민의힘·비례) 의원,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참석자

들이 하천변을 도보로 시찰하면서 하천 해설사로 나선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고윤주 사무국장의 설명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지방하천인 수원천과 원천리천은 과거 북개공사로 땅에 묻힐 뻔한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발전시켜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지금의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지역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생태하천화를 통한 수질 개선 효과와 지역 간 연결을 비롯한 활성화 효과, 지역민의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며 인천시의 하천에 적용할 부분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안종삼 기자

## 군·구별 건강지표 특성 파악·개선 방안 논의

###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인천시민의 건강지표 개선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성료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 군·구별 건강지표의 특성 파악과 개선에 대해 정책적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시민의 건강지표 개선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장성숙 대표 의원을 비롯해 신영희·나상길·임지훈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장성숙 의원이 진행을 맡은 이날 결과보고회는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 이훈재(의과대학)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용역 결과 분석 및 제언에 대해 설명했고, 이후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훈재 교수는 웅진군·미추홀·연수구 등의 건강행태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연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다각화된 지역 급연 지원 서비스 전

달체계 고도화, e음카드 연계 걷기 실천 인센티브 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인천시 군·구별 건강지표의 특성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적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인천시에 다양한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어르신들을 위한 도심속의 편안한 쉼터

은성휴요양원은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까지 신경쓰겠습니다.



쾌적하고 마음편한 노후를 위한 곳...  
부천 최고의 요양시설

입소관련 상담문의 032-683-3030

은성휴요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202, 은성프라자 2층 은성휴요양원(도당동 43-3)  
홈페이지 : <http://www.eshyo.com>